

360점 만점에 360점...광주시청 김수린 '퍼펙트' 쏘다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서 여자 30m '세계신'·'한국신' 타이기록 50m 343점 동메달 차지...광주여대 오예진·광주은행 최미선 등 선전

광주시청 김수린이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녀 양궁대회'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세계신이자 한국신 타이기록을 썼다.

26일 예천전호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30m에서 김수린은 360점 만점에 '360점'을 기록했다.

'10점 정중앙'인 엑스텐도 22개를 쏘았다.

여자 30m에서 김수린이 쏜 22개의 엑스텐 360점 만점 기록은 '세계신'이자 '한국신' 타이이다.

종전 타이기록은 2015년 '제47회 전국올스타 양궁대회'에서 한희지가 작성했다.

김수린은 50m에서는 343점을 쏘며 신정화(대전시체육회·345점), 심예지(청주시청·344점)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올해 광주시청 유니폼을 입은 김수린은 과감한

슈팅이 장점이다.

그는 지난 12일 열린 제35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 대회에서 대회 2관왕을 차지하며 팀에 첫 금메달을 안긴 바 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국가대표 오예진(광주여대 3년)이 70m에서 343점을 쏘 금메달을 획득했고, 30m에서도 358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오예진은 여자대학부 50m에서는 339점을 기록하며 341점을 쏜 염혜정(경희대)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서보은(순천대)은 여자대학부 60m에 출전해 343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등부 선수들도 입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주혁(광주체고)이 남자고등부 90m에서 319

점으로 강민서(경기체고)와 공동 2위, 남지현(광주체고)은 여자고등부 60m에서 341점으로 같은 점수를 쓴 장율리(울산스포츠과학고), 김서하(여강고)와 공동 3위에 올랐다.

남지현은 1361점으로 여자고등부 종합 3위에도 올랐다.

27일에는 최미선과 김이안(이상 광주은행텐텐 양궁단)이 개인전에서 여자일반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남지현도 여고부에서 김서하(여강고)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오예진이 여자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 다시 한번 1위 도전에 나선다. 8강에서 김아현(창원대), 4강에서 조민서(동서대)를 꺾고 결승전에 오른 오예진은 50m경기에서 1위를 내뽐던 염혜정과 결승전을 펼친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열린 이번 대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시청 김수린이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360점 만점을 기록했다. <광주시청양궁팀 제공>

펜싱 여자 플뢰레 대표팀,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 동메달

45-36으로 홍콩에 승리

한국 펜싱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홍세나(안산시청), 김기연(성남시청), 박지희(서울시청), 이세주(충북도청)로 구성된 여자 플뢰레 대표팀은 27일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열린 2024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엔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입상하지 못했던 여자 플뢰레 대표팀은 2022년 이후 2년 만에 동메달을 따냈다.

세대학교체가 이뤄져 이번 대회에 20대 선수만으로 나선 여자 플뢰레 대표팀은 개인전에서 홍세나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고 단체전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남겼다.

한국은 8강전에서 싱가포르를 45-35로 제압한 뒤 준결승에선 중국에 42-44로 패했으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을 45-36으로 물리쳤다.

결승전에선 일본이 중국을 39-34로 꺾고 우승했다.

남자 에페 단체전에는 김재원·이정환(이상 광주서구청), 손민성(화성시청), 마세건(부산시청)이 출전해 5위로 마쳤다.

에페 단체전에서는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이 각각 금, 은, 동메달을 가져갔다.

앞서 펜싱 여자 에페와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6일에 나란히 금메달을 수확하며 4연패를 달성했다.

오상욱(대전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대전시청), 하한솔(성남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이번 대회 8강전에서 사우디아

라비아, 준결승전에서 홍콩을 연파하고 이란과 결승전에서 45-26으로 웃었다.

한국은 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2019년부터 6년간 4연패를 달성했다. 2020, 2021년에는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파리 올림픽에는 세 선수와 함께 도경동(국군체육부대)이 단체전 대표로 출전하지만 이번에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 선발 규정에 따라 하한솔이 출격해 우승에 공헌했다.

여자 에페 대표팀의 강영미(광주서구청), 최인정(계룡시청), 이해인(강원도청), 송세라(부산시청)도 4연패를 합작했다.

대표팀은 8강전에서 대만,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차례로 꺾은 후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중국을 42-41로 어렵게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후배 성추행 논란' 피겨 이해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연인 사이였다" 반박 나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해외 전지훈련 기간 미성년자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고려대)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연맹은 26일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인을 비롯해 주변인 및 참고인, 피신고인(가해자) 조사를 거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해인은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고,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해인은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A를 숙소로 불러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지난 20일 이해인에게 A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27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술을 마신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귀던 남자친구였고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사귀게 됐다"며 "연맹 조사를 받을 때 고개 사침을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또 다른 피겨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B는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 촬영을 한 뒤 해당 사진을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B 역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이해인과 B는 모두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한편 이해인이 연인 관계라고 주장한 데 대해 A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주형·안병훈·고진영·양희영·김효주 파리올림픽 간다



왼쪽부터 김주형, 안병훈, 고진영, 양희영, 김효주.

골프 대표팀 확정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우리나라 골프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이 확정됐다.

대한골프협회는 27일 "2024 파리 올림픽 파견 선수단 명단을 확정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며 "올림픽 참가 자격은 국제골프연맹(IGF)의 남녀

세계 랭킹에 기반한 올림픽 골프 랭킹에 따라 정했다"고 발표했다.

파리 올림픽에 나갈 우리나라 골프 국가대표는 남자부 김주형과 안병훈, 여자는 고진영, 양희영, 김효주로 구성됐다.

대회는 남자부가 8월 1일부터 나흘간, 여자는 8월 7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르 골프 나쇼날 올림픽

코스에서 열린다.

강행도 대한골프협회장은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숙소와 이동 수단, 식음료 등에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대회 포상금으로 금메달 3억원, 은메달 1억5천만원, 동메달 1억원 포상금을 책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메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